

국제 정요전문가 백여명이 중국공산당 (이하 중공이라고 함) 의 전염병 진실 은폐를 규탄하다

북미, 유럽과 대양주의 백여명의 정요, 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서 중국국민과 중국 우호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 서명했다. 편지에는 중공이 무한 폐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규탄했고, 즉 지금이 바로 중국의 “체르노벨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4월 14일 캐나다 인터넷에 발표된 이 공개 편지에는 공산당이 협박적인 정치통제방식으로 중국 공민과 전 세계를 위협했다고 표시했다. 현재 세계적인 위기는 수십년간 수많은 인류로부터 정권에 대한 용인, 혹은 지지로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편지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독의 정확한 발원과 최초의 전파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발원문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중국인과 전 세계 인류로 말하면 세계적인 재난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요해해야 그것이 재발생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표시했다.

그리고 또 “무한 폐렴 문제의 근원은 전염병이 호북성 무한시에서 폭발 했을때 중공당국에서 그 사실을 은폐 했다는 것이다. 중공의 그림자속에서 세계위생조직 (WHO) 은 초기에 이번 전염병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체르노벨의 시각’은 일종의 자해행위 였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 중공은 전염병 폭발 초기에 기타 위생



공개편지는 “공산당이 협박에 의거한 정치 통치방식은 중국 공민과 전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에게 경고를 주려고 했던 그런 의사들을 억압했다: 아이펀 (艾芬) 의사는 국내 한 매체의 채방을 받은후 소리를 멈췄고, 그의 동료 리원량 의사는 무한 항역 (抗疫) 중에 사망했다.”

편지에서 장문빈 (张文斌) 이라는 대학생이 중공의 지지자로부터 양지가 있는 비판적인 중국공민으로 탈바꿈한 과정을 반성하는 내용을 인용했다. “나는 방화벽을 넘은 후 차츰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했다. 중공은 토지개혁, 문화대혁명, 3년재해, 계획생육, ‘6.4 도살’, 파룬궁박해, 서장, 홍콩과 신강인민에 대한 박해로부터 지금까지 악마의 손은 전세계로 향해 뻗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본척하고, 심지어 공적과 은덕을

찬양하는데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공개편지는 중국민중들이 중공의 협박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독촉했고, 전세계적인 대전염병은 모든사람에게 한가지 사실을 직면하게 했다. 중공의 일당 전제통치는 중국인의 건강을 포함한 생활마저도 정치적으로 되게 하여 모든사람을 위해했다. 우리는 더이상 중공, 그리고 관방 학자가 중공정책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독립적인 사상을 지닌 학자, 의사, 사업가, 시민기자, 공익변호사 그리고 대학생들은 더 이상 협박위주인 통치방식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당신도 이런 협박을 더이상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전염병 상황 기편 후과는 엄중하다 미 미주리주에서 중공을 기소



4월 21일, 미국 미주리주는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에 중공을 기소했다.

4월 21일, 미국 미주리주는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에 중공을 기소했다. 소송에서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하여 조성한 거대한 생명의 대가와 인류가 그로 인해 받은 고통,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미주리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중공을 기소한 지역이다.

4월 21일의 포커스 신문에 의하면, 미주리주에서 소송안을 제기하기 전에 적어도 7개 시민 단체에서 연방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중 하나는 플로리

다주에 있었고, 중공은 무한 폐렴의 엄중성과 거대한 역병을 유발하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조치를 늦췄다고 지적했다. 모두들 알다시피 중공은 머리를 모래속에 숨기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은폐해 왔다.

문장에서 “4월 20일까지 이미 22명 공화당 의원은 중공이 대역병 시기의 행위에 대해 중공을 국제 법정에 고소할 것을 트럼프정부에 요구했다.”고 적었다.

미주리주 관리는 4월 21일까지 미주리주에서 이미 5963명 무한 폐렴

감염자가 확진되고, 215 명이 사망했다고 표시했다. 미주리주에서 무한 폐렴의 전파를 감소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 정지 조치의 손실은 약 440억 달러이다.

“중공당국이 진행한 이 한차례 기편, 은폐, 독직과 무능함으로 인한 불가사의한 운동이 대역병의 폭발을 조성했다.” 기소장에는: “전염병 폭발 초기 관건적인 몇 주일간 중공당국은 중공을 기편해 관건적인 정보를 억압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체포했다. 증거가 부단히 추가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간에 전파를 부정했다. 중공은 또 중요한 의학 연구를 폐기시키고, 수백만 명을 병독속에 노출되게 한데 이어 심지어 개인 방호용품마저 사재기해 원래 저지할 수 있는 불 필요한 전세계 대역병을 조성했다.”고 적었다.

이 소송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공 각 정부기관의 책임을 추궁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 해야 할점은 피고에는 중공도 포함해 《외국주권면제권》의 제한을 에둘러 간 것이다.

미주리주에서 제기한 소송안은 중공정부, 중공과 기타 관련 조직에서 “괴상한 위험성 활동을 정지하고, 미주리주에서 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며, 기타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수치수정” 배후의 수법

최근에 중공은 무한 폐렴 사망자수를 50%로 인상했다. 외계에서는 중공의 이 행위는 이후의 “탈죄”를 위해 준비 한다고 분석했다.

중공의 확진 수치는 탄력성을 가졌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재“수정”이 가능하다. 중공은 “수정”하는 원인에 대해 절대로 “은폐”, “거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뒤늦게, 빠뜨리다 혹은 실수”로 핑계 댈 뿐이다. 죄책은 늘 중공의 지시를 따른 집행자의 것이며, 필요에 따라 희생양을 공중에 밀어내 자신의 위광정(偉光正) 역할을 계속하여 포장한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한동안 각 계에서 줄곧 무한 폐렴의 진실 은폐를 논의 했었다. 주요 문서인 ‘3호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전염병 발병 초기에 중공(中共) 위생 건강위원회는 여러 검사 기구에 검사를 중단하게 하고 반드시 환자 샘플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무한의 모든 일선 의사에게 무한 폐렴 정보를 대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3호 문건’이 폭로되자 “가면”이 벗겨진 것 마냥 외계에 중공의 마귀얼굴이 드러났다.

‘4.25’정신 : 캄캄한 세대의 평화와 이성의 빛

1999년 ‘4.25’그날을 회억하면 1만 여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국무원청원사무실에 모여 청원을 했다.

우선 그들은 중공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개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았다(참여한 대다수 수련생은 나중에 직장에서 쫓리거나 판결을 받았다.) 오직 그들이 수련하는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이라는 것을 정부에 표명했을 뿐이다.

다음은 청원시 질서가 정연했고, 광경은 상서롭고, 경찰마저도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다.

한 파룬궁 수련생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4.25’>란 문장에 이렇게 적었다: 같이 로동교양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 한 명은 1999년 ‘4.25’ 당일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보았던 경찰이었다. 그는 서로 안면이 없고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이토록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평화적인 데 대해 놀라웠다고 했다. 나중에 그는 주도적으로 ‘전법륜’을 찾아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세번째, 수련생 대표는 이유와 근거가 뚜렷하게 당시 중국 총리와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처럼 빠른 효력은 더는 있을수 없다. 하지만 강택민은 ‘4.25 평화, 이성적인 청원’을 ‘중남해를 포위 공격’했다고 모함하고 파룬궁에 대한 21년의 긴 시간의 박해를 발동했다.

무한 평민(彭敏)의 일가족 5명은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았



역사 사진 : ‘4.25’ 평화적인 대 청원

고, 2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보통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가족도 없다는다면, 살아갈 희망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변호사를 위탁해 미국에서 그들을 박해한 호북성 공안청 부청장을 기소해 승소 하여 해외 소송의 첫 시작을 뒀다.

20만 파룬궁 수련생이 실명으로 강택민을 고소한 것은 파룬궁 수련생이 법률수단으로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반박해 행위의 체현이다. 이 21년간, 그들은 경찰의 빈번한 소란, 자신의 유리걸식, 세인의 조소와 풍자를 견디어 내는 등 거대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평화로움과 이성적으로 세인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렸다. 한 파룬궁 수련생은 경찰에게 혹독하게 매를 맞을 때 “당신의 아이가 당신이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못보게 해요. 아이가 상처

받아요.”라고 하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폭행을 멈췄다. 오직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만이 이런 대선대인이 표현된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형세를 빌어서 중공은 결국 폭력의 악마의 손을 민중을 향해 뻗었다. 강제 해체 유혈사건, 강제 청원 차단,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전면 감시 등……. 무한 폐렴에서 은폐로 인한 대 폭발은 결국 중공의 습관적인 기편 성질, 백성의 안위를 무시하는 본성이 낮낮이 드러났다. 이는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중공은 더더욱 미친듯한 감시와 통제를 취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견정하고 바른 믿음을 지닌, 강권을 두려워 하지 않는, 평화롭고 이성적인 ‘4.25’ 정신은 우리들의 앞길을 밝게 빛추는 등불로 된다.

‘4.25’를 다시 보다

나는 친구 모임에서 국내 유명한 인권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민운(民運) 인사와 ‘6.4’사망 학생의 가족에 대해 경의와 동정이 가득했으며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으나 일단 파룬궁을 제기하면

순간 냉담하고 회피의 눈길을 나타냈다.

국내 일부분 지식분자 혹은 견식이 있다고 자칭하는 사람은 파룬궁에 대해 올바르게 못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념은 어디에서 왔

는가? 사실 중공이 1999년 ‘4.25’ 이후로부터 시작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모독과 먹칠에서 생긴 것이다.

중공은 반복적으로 ‘4.25’ 만명대 청원의 진실을 왜곡하고, 파룬궁이 “중남해를 포위 공격”하고 “정치를 했다”는데 불과하다. (4 면계속)

(3면 계속) 중공의 이른바 “정치를 했다”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권을 강탈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수련자라면 “명, 리, 정”을 내려 놓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이 어찌 속인의 권력을 탐내겠는가? 그들이 국가 청원사무실 (중남해 맞은편)로 모인 이유는 안델센 동화속에 옷을 입지 않은 황제를 본 아이처럼 오로지 정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로지 세인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輪大法好)’를 알려주고, 라간 (羅干), 하작휴 (何祚庥) 등이 파룬궁에 대한 요언과 모독을 폭로하며, 정상적인 련공 환경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바보가 아닌가?”라고 물을 것이다. 아니다. 수련자는 덕을 중히 여긴다. 덕이란, 고대의 쓰는 방법은 “德”이다, 직심 (直心)이 덕이라는 뜻이다. 한마음이 천법 (天法), 대도 (大道)와 연결되어 중심에는 사념 (私念)의 저애가 없으며, 구불구불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덕 (德)을 지닌 자다. 파룬궁 수련생은 중국 고대 고덕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직통으로 갈 지언정 곡에서 얻지 않는다.” 중공은 장기간 민중에게 중남해는 로백성이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강도 사유를 주입해왔다. 간다고 해도 인수가 많으면 소동을 일으켰다고 즉 ‘중남해를 포위 공격’하여 국가를 반대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25’그날, 1만 여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국무원청원사무

실 대문밖의 인행도로에 조용하게 하루종일 서 있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요구가 없었고, 격렬한 표어, 구호도 없었으며 아주 평화적이 었다. 그들은 다만 정상적인 연공 환경과 수련을 지도하는 <전법륜 (轉法輪)>을 합법적으로 출판하는 것만을 요구했다.

이전에 해외에서 여러해 생활하던 친구가 친지방문으로 귀국 했을때 나는 그에게 ‘4·25’진상을 말했다. 생각밖으로 그는 나의 말을 중단하면서 “중남해로 가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것은 청원이자 공민으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잖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들은후 너무 감동돼 여러해 지나서도 인상이 깊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회의 정상인의 사유다! 사람은 살면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이 ‘4·25’청원으로 지키고 유지해 온 것이 바로 매개 중국인이 태어나서부터 하늘이 부여한 기본 인권이었다.

생각해 보라, 만약 매개 중국인이 모두 진실을 말 할 권리를 지켰더라면; 모두 진상을 듣고, 찾고, 자주 판단을 견지하여, 진짜와 거짓을 구별 한다면; 중공의 거짓말에 배합하지 않고, 그의 세뇌를 거절 한다면; 사람마다 “호루라기를 건네준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날 중공이 역병을 은폐해 조성한 전염병 대류행이 발생 했겠는가? 중공이 정권을 강탈한 70년간 8천만 동포들이 한차례 또 차례의 인화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 했겠는가? 아직까지도 중공의 거짓말을 믿고 파룬궁에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이성적으로 한번 사고 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3 퇴’를 해야 평안을 보전’ 할 수 있는가?

중공은 나쁜짓을 너무 많이 해, 현재 하늘이 멸 하려고 하는데 그의 성원을 연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중공조직에서 퇴출하는 것은 “영원히 당을 따라 가겠다”라는 독서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하늘이 중공을 멸 할 때 같이 연루되는 것을 피면 할 수 있다.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 진심으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퇴출 할 때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돌파 프로그램’으로 해외 퇴당 메일 tuidang@epochtimes.com에 등록해 ‘3 퇴’성명을 발표 할 수 있다.



공안부 부부장 손력군 (孙力军) 이 악보 받아 낙마

2020년 4월 19일 저녁, 중공 관방소식에 따르면 공안부 부부장, 국내 안전보위국 국장 손력군 (孙力军)이 엄중한 위법 혐의로 중앙규위 국가감위 규률심사와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파룬따파 밍후이왕 정보에 따르

면 1999년 7월 20일 ~2019년 7월 20일, 중국 대륙에서 중공에 의해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 총 인수 (한사람이 여러번 납치되면 여러 차례로 집계됨)는 적어도 250만 명 ~300만명에 달한다.

중공 공안부 국보 총두목, 공안부

부부장, “610”판공실 부주임으로서 손력군의 죄책은 회피하지 못한다. 오늘 손력군이 중공에 의해 청산당한 것은 또한 과거에 그가 좋은 사람을 박해한 보응이다.

무한 일가족 5 명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3 명 위중 , ‘9 자 진언’을 넘하여 4 명이 구원되다



나는 호북성의 한 시골에 사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근 2년간 시내에 있는 아들의 회사에서 생활했다. 회사에 금성(별명)이란 42세 무한 남성이 있다. 그는 3,4년간 회사에서 판매(銷售) 일을 했었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도 사이좋게 지냈다. 그는 당원이었고, 회사에 금방 입사했을 때 나는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어 ‘3 퇴’(당, 단, 대 조직에서 탈출)를 도와줬다. 그는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잘 믿으며 또 기회만 있으면 세인들에게 중공의 사악함과 추태를 폭로하곤 했다.

금년 음력설기간 무한 폐렴이 폭발하여 호북 전 성의 각 시현이 모두 재해 중심 구역으로 됐다.

정월 20일 오후 금성은 급히 뛰여와서 “이모, 무한에 있는 한 동창생이 말하는데 그의 남편과 시부모님 3명이 모두 무한 폐렴에 감염돼 고열이 나 병원에 입원

했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그와 10여살되는 아들 장장도 발열하기 시작해 그는 극도로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나는 듣자마자 “빨리 그들을 위해 ‘3 퇴’를 해주고, 그들더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넘하도록 전해요.” 나는 즉시 진상 호신부를 찾아 금성더러 핸드폰으로 촬영해 동창에게 보내주라고 했다.

금성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즉시 촬영해 동창에게 보내면서 어서빨리 호신부 위의 글에 따라 성심껏 넘하면 명을 구할수 있다고 안위시켰다. 그는 즉시 전화로 그녀남편에게 퇴당하게 하고, 동창 본인도 퇴당하고, 아들 장장은 퇴대를 했다. 금성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서 정중하게 나에게 넘겨주면서 나에게 그

들의 ‘3 퇴’성명을 인터넷에 발표해달라고 부탁했다. 금성은 또 동창에게 입원한 사람을 포함한 일가족에게 정신만 말짱하면 모두 빨리 호신부에 따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 ‘9 자 진언’을 넘 하라고 하면서 꼭 효과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동창생은 그대로 했다.

정월 말이되어 금성은 다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동창은 파룬궁이 그를 구해 주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시아버지 한분이 연령이 많고 병이 중해 사망한 외 시어머니, 남편, 아들은 모두 목숨을 보전했다고 하면서 금성이 그 의 온 가정이 생명위기시에 관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성은 또 한번 동창에게 앞으로도 온 가족이 모두 매일 외우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자 동창은 꼭 매일 외울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학가 : 중공은 연합국조직을 이용해 전염병 상황을 은폐했다

캐나다 오타와 MLI, Macdonald-Laurier Institute 학원의 고급연구원 J. Michael Cole는 4월 14일 작문에서 권위적인 중공이 연합국에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 것은 서방 민주국가의 소홀함과 부족한 지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장에서 무한 폐렴 사례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중공의 지시를 따라 전염병 상황을 은폐했기에 병독이 전 세계에서 창궐하게 됐다고 가리켰다.

J. Michael Cole는 말했다. 기타 연합국 기구처럼 세계보건기구의 언행도 마치 중공외교정책의 연장으로 보일 때가 많다. 그의 최고 관원은 중공의 "명령에 복종"하고, 중

공도 그를 리용해 배후에서 부단히 거세지는 영향력으로 중공체제의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레를들면 국제 항공조직, 국제 형사경찰조직) 혹은 중공의 지시에 굴복 하려는 국가대표를 기구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악렬한 인권침해자 중의 하나인 중공이 연합국 계통에 대한 공제를 가강하는 것을 용납했다. 그의 인권침해 행위는 공민사회 파괴, 종교신앙과 언론자유, 그리고 부당한 정견인사에 대한 박해, 신강 집중영 건립 등이 포함됐다.

J. Michael Cole는 문장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에티오피아에서 위생부장을 취임할

때 당국의 광란역병 은폐에 참여했다고 고발됐다. 2017년, 중공의 지지하에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마레정당) 출신인 아드하놈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J. Michael Cole는 이어서 말했다. "아주 뚜렷한 것은 아드하놈과 그의 조직은 중공의 전염병 은폐를 무시하고 싶어 했고, 마치 그들이 대만질병공제중심에서 1월에 제출한 무한에서 나타난 "사람간 전파" 되는 질병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소홀이 전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큰 재난을 초래했다."

심각한 무한 폐렴 재해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다

무한 폐렴 전염병이 시작됐을 때 중국공산당의 은폐와 기만으로 인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송년회에 참석했다. 아버지도 친구들이 많아 거의 매일 각종 연회에 참가하셨는데, 많을 때는 수십 명, 백여명이 될 때도 있었다. 이 같은 연회는 2020년 1월 22일 저녁까지 계속됐는데 전염병은 이미 폭발해 숨길 수 없게 되어 다음날 도시가 봉쇄됐다.

당시 전염병이 심각한 무한에서 매일 식당 술집을 빈번하게 드나들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친구 A는 1월 11일 전에 동창 모임에 두 번 참석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무한 폐렴에 전염됐다.

결국, A 부부는 모두 감염됐고 얼마 되지 않아 A와 A의 친구는 모두 무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그다음 며칠 동안 아버지는 위챗으로(微信) 날마다 오늘 어느 친구가 무한 폐렴에 걸렸고, 어제는 지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주변 동네에서 몇 명 더 죽었거나 또 얼마 감염됐는지 이런 일들이었다. 저녁 6~7시가 되면 오가는 차들이 마치 꿈틀거리는 용 같았던 거리가 텅 빈 도시처럼 조용해졌고, 몇 분 간격으로 먼곳에서 오가는 구급차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가 새해 전 연회에서 매일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감염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 비록 아버지는 매일 무한 폐렴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대해 걱정

하고 두려워하시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우리 집은 대법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만큼 스트레스도 적었고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적었다.

아버지는 비록 수련하지 않지만 나와 어머니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이래 신체와 성격이 크게 개선됐고,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선을 행하고 심성을 닦고 품성을 수양하도록 가르치는 공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아버지는 대법이 나와 어머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수련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일찍이 사악한 당에 가입한 단(團)·대(隊)에서 탈퇴하셨다.

이번에 아버지가 무한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법이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주신 것이다! 나의 국외에서 류학중인(수련하지 않는) 외사촌 언니는 나의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들은 사부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택배”

하루는 어머니가 신기하게 나에게 두개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 한장을 건네주고는 나에게 “택배”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느날, 어머니가 철제난간 밖에서 수취인을 기다리는 택배기사를 보고 생각했다. “내 아들이 사람을 구하느라 바쁘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두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나도 사람을 찾아 대법제자가 알려준 아홉 글자 진언을 그에게 알려주어 평안을 보전하게 해야지.”

어머니는 택배기사 가까이로 가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에게 줄 ‘택배’가 있습니다.”라고 하자 택배기사는 아주 기뻐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지금 전염병이 도는 중에 당신은 매일 밖에서 뛰여다니므로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을 보전하고 전화위복 할 수 있는 아홉 글자 진언을 알려줄게요. 전염병을 멀리해야 당신 고향의 가족들도 걱정을 안하지 않겠어요?”

택배기사는 말했다. “당신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 (眞善忍好)’를 기억하면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했던 소선대를 탈퇴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선혈에 물든 것이니 재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나쁜 운을 가져다 줍니다.” 택배기사는 말했다. “나는 당원입니다. 공청단, 소선대에도 가입했습니다. 다 탈퇴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으십니다.”

어머니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이 아홉 글자를 외워서 20여년간 병이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제자가 나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도 소책자를 보았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재앙텔레비전 감독이 파룬궁을 모함한 조작극이니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기사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평안을 속일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당신의 돈을 갈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택배기사는 아주 감동되어 “할머니 나는 할머니 ‘택배’를 받았습시다. 이는 제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택배’입니다.”

말하는 중 소구역 주민도 택배를 받으러 왔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건네준 다음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 어머니는 택배를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에게 ‘택배’를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에게도 진상을 알렸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

출했으니 천벌을 받은 겁니다. 현재 전염병은 하늘이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많이 배운 사람 같은데 공산당의 희생양이 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중년인은 “나는 당원입니다. 나를 도와 탈퇴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다. 어머니는 물었다. “공청단과 소선대에도 가입했지요? 깨끗하게 다 탈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년인은 말했다. “네. 당신의 말대로 다 탈퇴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가명을 지어 주자 중년은 아주 만족해하면서 기쁘게 말했다. “방금 문을 나설 때 까치가 짹짹 울더니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택배 두 개를 받았습시다. 이모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나는 무슨 진상도 다 보았는데 헛되게 보면 안되지.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온 가족이 다 좋은것은 모두 대법(大法) 사존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야.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고맙다. 무엇으로 표달하겠어. 오직 ‘파룬따파하오’란 한마디 말밖에 더 좋은것은 없다.”라고 했다.

저녁밥을 먹고 내가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말씀하셨다. “이후에는 채소만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택배’를 가져다주면 좋겠다.”



화가가 묘사한 역병 (The plague of the Philistines at Ashdod)

그림 이야기

고대 로마는 력사상 3 차례 대역병이 발생했다. 기원 64년, 네로는 기독교를 참혹하게 박해했다. 이듬해 대역병이 폭발했고, 3년후 로마성은 폭동이 일어나 네로는 도망 도중에 자살했다. 서기 161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왕위를 계승 받은 후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다. 서기 166년 16년간 창궐했던 대역병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력사상 이를 “안토니 역병”이라 부른다. 249년 데키우스 발비누스가 즉위해 기독교신자에 대해 전례가 없는 박해를 가했다. 2년 만에 역병이 나타나 근 20여년간 창궐하면서 2,500만 명의 목숨을 아사갔다. 고대 로마가 정신(正信)을 박해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3 차례 대역병, 선후로 6000만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곤란중에서 굴기하여 세인이 보편적으로 신을 믿게되는 전성시기에 들어섰다.

한개 오랜 역사를 가진 수련대법으로서 파룬따파 (法轮大法) 의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는 오래전부터 중서방 의학계의 주목을 가졌다.

1998년 북경, 무한, 대련과 광동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은 3만여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의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파룬궁 수련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효과가 98%로 나타났다.

1998년 11월 10일, <양성완보 (羊城晚报)>는 <노소가 모두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제목으로 몇곳의 5000명이 참가한 파룬궁 대형 아침련공을 보도했다. 그 보도는 93세 노인과 2살어린애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진이 실렸다. →



2016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공식망에서 한 논문을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 했다: 파룬궁 수련은 암증을 호전 혹은 완쾌시킨다.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따파 또 파룬궁이라 하며, 1992년 5월 13일에 리홍쯔 (李洪志) 선생이 장춘에서 전해 온 불가상승 (佛家上乘) 수련 공법이며 '진, 선, 인 (真, 善, 忍)'을 근본지도로 함과 동시에 5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파룬따파는 사람 마음을 정화하고,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다. 백성들 중 입과 귀로 전하여, 아주 빨리 집집이 알게되어 중국의大江南北 (大江南北)에 널리 전해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다. 파룬따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세계 각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파룬따파의 주요 서적 <전법륜 (转法轮)>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국문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문 서적이다.

제 1 장 공법
佛展手法
(포잔첸서우파)

제 2 장 공법
法轮桩法
(파룬창파)

제 3 장 공법
贯通两极法
(판통량지파)

제 4 장 공법
法轮周天法
(파룬쩌우토펬파)

제 5 장 공법
神通加持法
(선통자츠펬파)

